

정보교육과 정보자주성

The Education of Information Autonomy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o Young-Man,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
ymko@skku.ac.kr <http://slisnet.skku.ac.kr/~ymko>

정보문화의 전개에 따라 사회적 정보문제와 개인적 정보문제의 질적, 양적인 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패러독스,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기회의 패러독스, 정보의 참조문제, 정보의 타당성 문제를 분석하고,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매체로서의 정보교육과 정보자주성 문제를 다루었다.

1. 서론

사회라는 것은 어떤 의명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각 개인들이 그 자신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상이한 행동들이 집합된 그물망이다. 산업사회에서 각자의 위치확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는 직업이라는 견해에 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짐멜은 일치하고 있다 (Weber 1976 ; Simmel 2000).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기술의 지속적 확산 메카니즘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가졌던 직업의 정형적 형식이 해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교육을 통해 정보자주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교육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야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보사회학 측면에서도 도서관 이용자 교육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교육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와 정보사회학적 관련성 역시 아직까지는 전문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정보교육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정보교육 문제가 정보문화의 전개에 따른 양적, 질적 분화과정에서 발생

하는 하나의 변증법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보교육을 정보문화 프로세스에서 개인의 정보문제와 사회의 정보문제로 분화되는 과정의 통합적 사회 조정매체로서 관찰하고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사회적 정보문제와 개인적 정보문제의 질적, 양적인 분화과정을 분석하고,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매체로서의 정보교육과 정보자주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정보교육의 상황관련성

2.1 정보사회와 IT 사회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란 그 사회 스스로가 서술하고 정의한 속에서 유지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¹⁾ 그러면 변화의 어떠한 본질적 요소들이 정보사회를 지시하는 것일까?

원래 정보사회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행동관련성에 대한 것이 본질적 주제였으며 정보사회를 '공적, 사회적 생활영역 및 경제, 행정, 정치행위에 있어서

1) 루만(Niklas Luhmann)에 따르면 정보사회란 우리가 사회라는 용어에 덧붙여서 어떤 사회 상태를 선별적으로 서술하는 것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라는 용어 외에도 여가사회, 소비자사회 같은 여러 상이한 자기 묘사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정보 또는 지식이 중심적인 사회'로 정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루어진 토론의 중심에는 정보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IT로 일컬어지는 총체적 정보 기술에 대한 언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과 관련된다.

오늘날의 사회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경우 질서, 합리화, 사회의 구조화 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자 시대적 프로젝트였던 근대가 좌초하면서 탈근대의 싹이 텃으며,²⁾ 탈근대는 세계화, 다원화, 모순성, 윤리상실, 실체복사, 가상화 등의 특성을 지닌 새로운 IT 기술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는 새로운 IT 기술이 가장 눈에 띄는 탈근대의 외형이자 해체되고 있는 근대의 새로운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탈근대를 정보사회로서 보다는 IT 사회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³⁾

정보사회에서 IT 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정보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탈가치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것들을 정보로 일컫는 현상이 보편화될 정도로 정보 자체의 개념은 상실되었다. 매체적 형식의 정보와 인식적 형식의 정보에 대한 구분도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정보는 이제 그 내용이나 행동관련성

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2 정보문화와 정보교육

정보문화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 정보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모든 생활영역에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IT 기술에 의해 생활 형태와 생활 속에서의 자기 표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이 기술과 매체들을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고 있다. 정보문화란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IT 기술과 매체들을 올바르게 취급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자는 사회적 동의를 구축하는 것이다. (Gesprächskreis Informatik 1999) 정보문화의 구축이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보문화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동의의 형성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IT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총체적 의미에서 문화란 어떤 집단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가치이자 전형적 생활형식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 촉진을 통해 문화는 한 사회의 복지 수준과 번영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문화는 또한 개개인들에게 스스로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자유영역을 형성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게 하여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시대의 정보문화에 부여되는 과제는 의, 식, 주와 더불어 정보와 IT 기술의 사용가능성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Informationswissenschaft Düsseldorf 1996)

정보문화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교육의 필요성은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적 이해에서 출발하며 개개인들로 하여금 정보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IT 기술은 교육기관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2) 울리히 벡(Ulrich Beck),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등에 의해 구축된 사회학적 이론이 장 프랑소와 료파르(Jean-Francois Lyotard), 볼프강 벨쉬(Wolfgang Welsch) 등이 철학에 제기하였던 명제들에 동의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탈근대 또는 포스트모던에 대한 가설은 이제 안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정보사회의 초기단계 역시 핵심기술들이 사회의 변화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 기술을 사회와 동일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인류의 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기술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회를 자동차사회, 원자사회, 피임약사회 등으로 일컫지 않았었다.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해석에는 엘 고어, 마틴 방에만, 빌 게이츠 등과 같은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순수하지 못한 기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지식의 연결 고리를 놓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Task Force Group”이 1994년 여름 제출한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풍부한 정보자원을 소유하고 또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류와 정보자원을 거의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부류”의 두 계층으로 분리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EU 1994).

새로운 IT 기술이 사회적, 개인적 생활 영역에 침투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도전에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거시적인 정보교육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개개인들이 정보 자주성을

학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습득한 정보의 가치와 행동관련성을 확신할 수 없다. 정보의 선택 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의 더 많은 유연성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컴퓨터 소양의 촉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Enquete Kommission 1997, 61).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정보자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을 경우 정보적으로 교육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보의 선택과 지식습득의 유연성과 같은 능력이 정보 교육의 일반적 구상에 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업과의 통합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도 개발되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정보교육 지침 모형⁴⁾

Mötsch	Big6	ACRL
기초지식 (정보기술사용능력)	1. 과제의정의 1.1 해결할 과제의 요점 파악 1.2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유형 파악	1.The information literate student determine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information needed.
행동능력 - information competency - presentation competency - communication competency - transaction competency	2. 정보탐색전략 2.1 사용가능한 정보원 파악 2.2 최적의 정보원 선택	2.information literate student accesses needed informat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3. 소재 파악과 접근 3.1 정보원의 소재 파악 3.2 정보원에서 정보 찾기	3.The information literate student evaluates information and its sources critically and incorporates selected information into his or her knowledge base and value system.
메타능력 (통합적, 거시적, 연계적 평가능력)	4. 정보활용 4.1 찾아낸 정보의 읽고, 보고, 듣기 4.2 적절한 정보 가려내기	4.The information literate student, individually or as a member of a group, uses information effectively to accomplish a specific purpose.
	5. 통합정리 5.1 가려낸 정보들의 체계적 정리 5.2 최종 결과물 만들기	5.The information literate student understands many of the economic, legal, and social issues surround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accesses and uses information ethically and legally.
	6. 평가 6.1 결과의 유효성 평가 6.2 과정의 효율성 평가	

갖추게 됨으로써 사회의 그물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분리되는 계층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IT 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 통합의 조정매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 교육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정보시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어떤 방식에 의해 습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3. 사회적 정보문제

3.1 객관적, 양적 측면 : 정보의 패러독스와 정보기술의 패러독스

사회적 정보 문제에 있어서 항상 반복적으로

4) Mötsch는 1997년 Konstanz 대학에 제출된 Diplom Arbeit에서 학교에서의 정보소양교육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정보학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Eisenberg와 Berkowitz가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Big6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ACRL에서는 대학에서의 정보능력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침으로 다섯 개의 표준모형 추천하고 있다.

대두되는 정보의 패러독스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토대로서 작용하는 정보시장이 현실적으로는 정보의 획득과 사용을 점점 어렵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틀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정보의 패러독스 즉 '문제 극복을 위한 정보 행위에서 요구되는 위험부담의 축소와 불확실성의 감소가 오히려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상'은 패러독스 현상 자체보다는 그 순환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Wersig 2000). 정보 문제와 관련된 작업의 방법론과 사용 기술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 복잡한 정보작업 자체가 더 복잡한 정보 문제를 형성시켜 가는 순환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패러독스 현상과 더불어 오늘날의 정보 가공 및 유통체계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정보 이용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IT 기술의 패러독스가 지적되고 있다: "IT 기술이 더 많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생산될수록 이 정보의 극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nquete Kommission 1997, S.62)

기술적 보조 도구의 기능이 발전할수록 그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더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보조 도구의 기능이 점점 더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되는 것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기술시스템과 추상적 사회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근대에 비해 정보사회의 복잡성이 덜하지 않으며 (Giddens 1990), 기술적 정보 보조도구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이다.

3.2 주관적, 질적 측면 : 기회의 패러독스

정보사회의 초창기 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정보의 사용 효과가 더 이상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이 많이 나타났었다. 이 주장에 동의할 경우 정보라는 것은 기업 간의 경쟁적 우위 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정보 부국과 빈국의 차이도

없을 것이며 정보의 부족이 앞으로 전개될 차별성의 근거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책과 잡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적, 경제적, 또는 영향력 면에서 동일하지 않듯이 전자적 지식 저장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보장된다고 해서 정보의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생산물의 다양성은 일차정보서비스뿐 아니라 메타정보 서비스에 있어서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상이한 기능들이 상이한 비용을 들여 생산되고 있고 사용료 역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사적, 공적, 전문적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어려운 정보 작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정보사회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그러나 그 시효가 이미 지났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사용과 이에 따라 얻어지는 지식은 더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보문제가 지니는 보다 질적이고 본질적인 기회의 패러독스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Kuhlen 2000).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모든 사람이 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공급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숙된 정보사회란 모든 사람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균등하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보가 가져다 주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의 기회 균등은 정보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목표는 정보의 자주성 촉진으로 실현된다.

4. 개인적 정보문제

4.1 정보의 자주성

정보의 자주성은 지식의 자주성에 대한 개념과는 다르다. 지식의 자주성은 자신의 지식적 토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식 자주성은 오늘날 구축되고 있는 개방적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더 이상 개인의 학습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도달할 수도 없다. 반면에 정보 자주성은 "정보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원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이러한 작업을 의식적이고 통제적으로 대행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된다 (Kuhlen 2000). 정보 자주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문제 해결 상황에 있어서 지식 자주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일반적으로 정보 교육과 관련해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정보 자주성이라 할 수 있다.

점점 복잡하게 되어 가는 정보시장에서 정보 자주성을 갖추는 문제는 사회적 정보 문제의 양적인 도전과 질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양적인 도전이란 정보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정보 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용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이며, 질적인 어려움이란 최종 이용자가 스스로 찾아낸 정보 또는 정보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와 행동 관련성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말한다. 양적인 도전은 보다 객관적 측면의 것으로서 정보 자주성에 있어서의 참조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질적인 어려움은 보다 주관적 측면의 것으로서 정보 자주성에 있어서의 타당성 문제라 할 수 있다.

4.2 객관적, 양적 측면 : 정보의 참조문제

정보의 참조 문제는 정보 자주성의 관점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정보 단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과 관련된다. 매우 좁은 범위의 지식 분야에 있어서조차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자원, 원저작물, 메타정보 등을 찾아내서 읽어보는 것, 더 나아가 그저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만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보 자원들은 매우 다양하게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또 이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저장 구조와 이에 필요한 질의어 등의 특별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보의 참조문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매체와 정보 작업의 기술화를 고려할 경우 참조 정보를 생산해 내는 작업이 전문적 지식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용법을 학습해야 하는 질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4.3 주관적, 질적 측면 : 정보의 타당성 문제

정보의 타당성 문제란 스스로 습득하거나 아니면 정보중계자 또는 정보기술적 보조도구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유효성 및 품질의 문제를 말한다. 정보의 타당성 문제는 주로 정보 작업을 정보중계자 또는 정보기술적 보조도구에 대행시켰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이다.

습득한 정보의 가치와 행동관련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분석적 관점에서 볼 경우 새롭게 얻은 정보를 기존의 일반적 법칙에 배열하는 것이며, 종합적 관점에서는 다수의 개별 정보로부터 새로운 연관성을 추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판단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적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서 가능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획득한 매체에 수록된 지식과의 간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일반적 법칙에 배열하고 종합적 관련성을 찾아내는 정형적 판단은 훈련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 가치를 검증할 수 없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 문제는 적합 또는 부적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이다. 점점 복잡해지는 정보 환경에서 당면한 과제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가 진실인가 아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Kuhlen 2000) 일반적으로 정보의 참조문제가 극대화되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정보의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해당 정보로 여겨지는 것들을 모두 기꺼이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결론 : 정보문화의 조정매체로서의 정보교육과 정보자주성

적합하게 선별된 정보들이 우리 머리 속으로 직접 날아 들어와 그 곳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변하는 게으름뱅이 정보 극락은 없다. 정보 문제가 없는 세상은 결코 실현된 적이 없으며 그런 세상은 구축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정보 작업 없이는 정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보시장의 다양한 자원들 속에서 잠재적으로 정보가 될 데이터로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보는 노력해서 획득해야만 한다. 노력해서 정보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그 정보를 행동 관련성과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기술의 사용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서는 정보 방법론적 능력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적 능력까지도 요구된다.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노력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통해 학습되지 않을 경우 정보의 평가 능력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의 접근을 동등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적 기능들이 지니는 장점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전제조건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기회평등은 정보 교육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정보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정보 자주성이며, 정보 자주성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현존하는 자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 자주성의 수준은 그가 속한 사회의 정보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 참고문헌

ACRL,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http://www.ala.org/acrl/ilcomstan.html>>

Beck, Ulrich. 1986.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M. : Suhrkamp

Big6 associates. 2001. The Big6 : The Teaching Technology and Information Skills
<<http://www.big6.com>>

Enquete Kommission. 1997. Enquete Kommission Zukunft der Medie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Deutschlands Weg in die Informationsgesellschaft. Deutscher Bundestag (Hrsg.) : Zur Ökonomi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Perspektiven, Prognosen, Visionen. ZV-Zeitungs-Verlagen : Bonn

EU. 1994. The Bangemann Report - Europe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recommendations to the European Council. Brussel : EU
<http://www.egd.igd.fhg.de:10555/WISE/globals/ecinfo/general_information/bangemann.html>

Gesprächskreis Informatik. 1999. Informationskultur für die Informationsgesellschaft - Anforderungen an Politik, Wirtschaft, Wissenschaft und Gesellschaft. Berlin : BMBF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anford, CA

Informationswissenschaft Düsseldorf. 1996. Informationskultur - Diskussionsergebnisse eines Seminars im Sommersemester 1996 an der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im Fach Informationswissenschaft.
<<http://www.phil-fak.uni-duesseldorf.de/infowiss/frames/infkult.html>>

Kuhlen, Rainer. 2000. Informationelle Bildung - Informationelle Kompetenz - Informationelle Autonomie. Vortrag 15. Nov. 2000 auf dem "dies academicus" der Technischen Fachhochschule Berlin 15. Nov. 2000

Luhmann, Niklas. 1998.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 Suhrkamp

Liotard, Jean-Francois. 1986. Das postmoderne Wissen. Graz: Böhlau

Mötsch, Brigitte. 1997. Informationelle Bildung in der Schul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Internet - Aspekte und Grundlagen curriculärer Konzeptionen. Diplomarbeit. Universität Konstanz.

Simmel, Georg. 2000. Philosophie des Geldes. Frankfurt a.M. : Suhrkamp

Weber, Max. 1976.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 Mohr

Welsch, Wolfgang. 1988. Unsere postmoderne Moderne. 2. Aufl. Weinheim : VCR

Wersig, Gernot. 2000. Perspektiv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NfD 51 : 461-465